옹 한다!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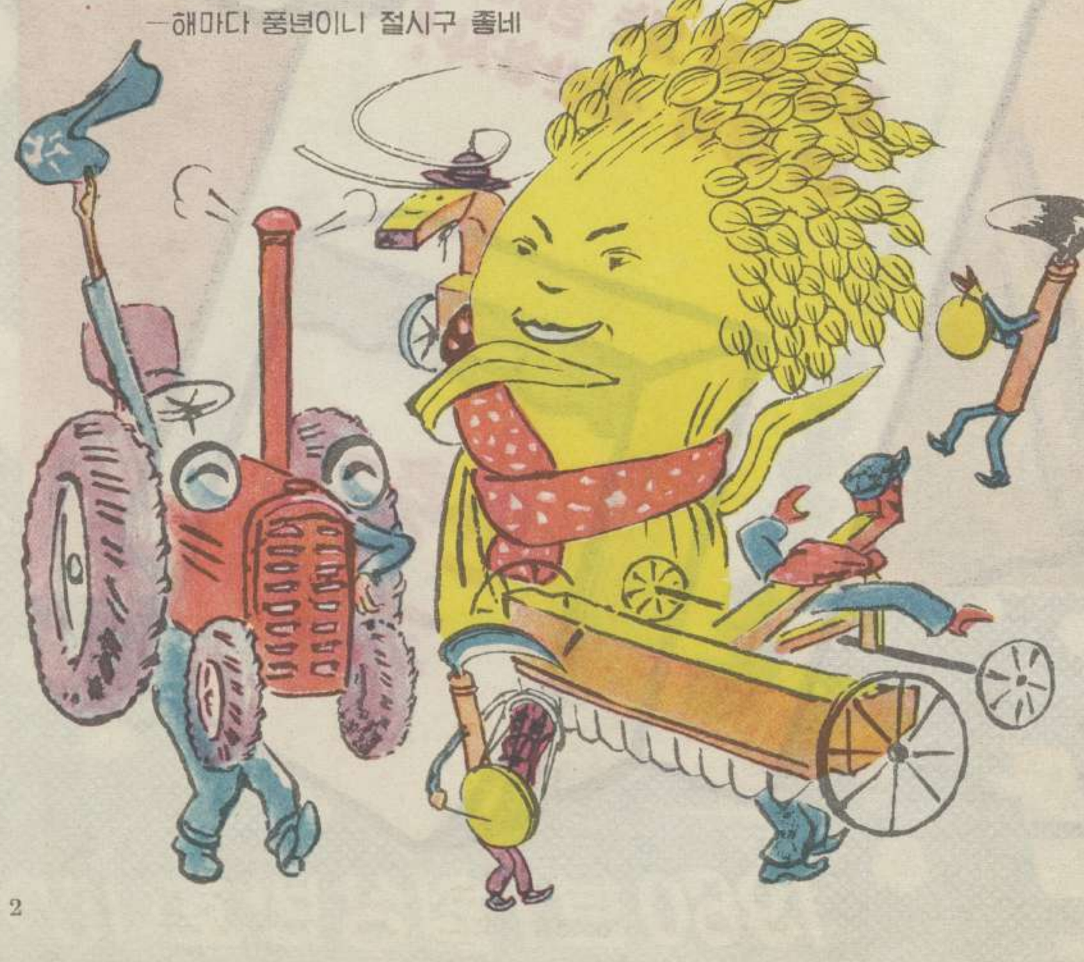
3 - APR 11
Copy

화살

1960년 1월상반호 (117)

— 앞으로 동무에게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농촌 기계화 얼시구 좋다
—해마다 풍년이니 절시구 좋네



송 용남 그림

조국은 뜨거운 심장으로 귀국 동포들을 포용 한다!

눈물로 헤여지고

꽃보라 속에 다시 만났다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리 승만 도당들은 의지할 곳 없는 실업자, 절량 농민들을 《이민》이란 명목하에 외국의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종신 노예로 팔아 넘기려고 획책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새해의 결의

신 홍순

녀 새해를 축하합니다.

남 예,나도 축하 축하를 드립니다.

녀 아니 축하면 축하지 축하 축하가 뭐예요?

남 하나는 승리의 새해를 축하하는 인사구요

녀 또 하나는요?

남 그건 동무의 결혼을 축하하는…

녀 아니 누가 그런 생뚱 같은 소릴해요?

남 음 그럼 아직 약혼두 안하셨단 말이죠? 으흥! 그렇다면 저으기 안심이 되누먼

녀 동문 새해에 어떤 결의를 하셨나요?

남 새해 결의요? 나도 리상이 맞는 좋은 상대자가 나선다면 금년에 결혼을…

녀 누가 그런 것 말인가요?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어떠한 보람찬 일을 하겠느냐 말이예요

남 보람찬 일이라… 우선 대구 달릴 작정입니다.

녀 달려요? 그럼 금년에 마라손 명수로 될…

남 아니죠. 뜨락또르를 타구 달리지요. 지금 저 기양 기계 공장이나 덕천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뜨락또르며 자동차가 꾀리를 맞물고 대구 농촌으로 달려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전대를 떠억 잡고서 (노래조로)

무연한 들판에 뜨락또르 달린다
청춘의 정열과 사랑을 싣고
증산의 기세 높이 흙물결 일으키며
우르릉 우르릉 힘차게 달린다.

자 얼마나 보람찹니까?

녀 그렇지요 이번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내세운 금년도 중심 과업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력량을 집중하는 거니까요.

남 그럼요.

현대적 동력 기계와 축력 농기계를 배합해서 밭 가는 것도 기계루, 파종도 기계루, 제초도 기계루, 추수도 기계루, 운반도 기계루, 탈곡도 기계루 이렇게 기계화가 되니 일은 헐하고 농률은 오르고 로력은 적게 들고 소출은 더 나고 게다가 농민들의 문화 수준은 높아 가고…

녀 그러기에 지금 각 기계 공장들을 비롯해서 농기계 제작 공장이며 농기계 수리 공장, 농기계 작업소 할 것 없이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남 근데 동무는 새해에 어떤 결의를 하셨나요?

녀 예 나요? 나는 대구 칠 작정이예요

남 쳐요? 예—권투 선수로…

녀 웬 권투 선수는요?

남 그림 뭘 쳐요? 가마니를 쳐요?

녀 가축을 치죠. 소도 치고, 돼지도 치고, 양도 치고, 토끼도 치고, 닭이며 오리도 치고…

남 예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신다'그 말이죠?

녀 동무는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데 대한 12월 전원 회의 결정 내용도 연구하지 않았군요?

남 아 왜 안해요?

녀 알면 얘기해 보시란 말예요

남 우선 알곡과 채소를 더 많이 생산하고 질 좋은 각종 소비품도 더 많이 만들어 내구요

녀 그리구요.

남 도시와 농촌에는 더 많은 문화 주택을 짓고 탁아소며 유치원, 목욕탕 그리고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구락부 같은 문화 후생 시설을 광범히 건설하기로 됐죠.

녀 그리구요?

남 로동 생산 능률 제고, 외화 획득과 절약!

녀 그리구요?

남 그리구 또? 그리구 또 뭘가?

녀 수산업과 함께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과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남 오 옳지! 수산업과 축산업—그렇지 고기 반찬이 빠졌군, 그래 고기며, 우유며, 계란 게다가 펄펄 뛰는 물'고기—음 인젠 알구 보니까 동무는 목장에서 일을 허누먼 그래?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인민 생활의 더 높은 향상, 히야! 꽃피는 우리 생활 정말 좋소!

녀 우리 북반부는 날로 행복해만 가는 지상 락원이죠!

남 헌데 저 남반부 벌판에도 달리는게 있죠.

녀 무슨 뜨락또르가 있다구 벌판에서 달려요?

남 뜨락또르가 아니라 대포며 땅크가 달린단 말입니다.

녀 예, 미제와 리 승만 도배야 전쟁 미치광이니까요.

남 그리구 또 치는 것도 있습니다.

녀 치긴 뭘 쳐요? 가축도 없는데

남 가축을 치는게 아니라 경찰, 테로가 사람을 치죠, 더구나 금년에는 정 부통령 선거까지 있어놔서 인민들에 대한 탄압이 전례 없이 혹심할 겝니다.

녀 다 썩은 기둥 뿌리를 유지해 보려고 벼라별 짓을 다 헐테죠.

남 그래서 그놈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많이 만들고 있죠.

녀 뭘 많이 만들어요?

남 고랑쇠

녀 옳지,사람 묶어 가는 고랑쇠

남 그리고 형무소도 더 만들고 경찰을 더 늘쿠고

녀 잘 헌다! 지랄 발광을 하는구나

남 허지만 될 말인가요. 탄압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기세는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녀 어서 평화 통일이 돼서 남반부 인민들도 우리와 함께 이 행복을 누려얄텐데

남 머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인 사회주의 건설에 온갖 열성을 다 바칩시다.

녀 그럽시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 완충기의 과업을 보람차게 완수합시다.

가족 사진

토끼—독자 여러분! 바로 이분이 저의 할머님이신데 불과 몇달 동안에 이 많은 자손을 보았으니 자랑할만 하지요!

허 능택 그림

송 용남 그림

— 금년엔 물건도 더 많아지지만 만들기도 더 잘 만든단다.

행복의 보금자리는 늘어만 간다

조 명식 그림

더 많은 광석을 위하여

홍 종호 그림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시킬 수 없다

백 인규 그림

똘똘이와 삼녀

오 은렬

똘똘이　애, 너 저금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삼녀　그걸 모를까머.

똘똘이　말해 봐.

삼녀　아주 중요하지머

똘똘이　어떻게 중요하냐 말야

삼녀　글쎄 아주 중요하다지 않어?

똘똘이　자 이런? 똑똑히 들어, 저금이란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구 돈이 생겼을 때에 호주머니채루 룩룩 다 털어 쓰지 않고 얼마씩 은행이나 우편국에 맡겼다가 큰 돈이 된 다음에 옷감을 끊는다든가 가구를 장만한다든가 기타 필요할 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삼녀　이야! 너 고급 중학교 학생들보다 낫구나 애, 참 대단한데!

똘똘이　아첨하지 말어,

삼녀　아냐, 사실 그래.

똘똘이　그러기에 똘똘이 아냐!?

삼녀　그런데 너 어디서 그렇게 횡하니 외워 두었냐?

똘똘이　우리 어머니가 자주 타이르는 걸 들었지 뭐

삼녀　누구 보고 타일러?

똘똘이　아버지 보고 타이르지머

삼녀　너의 아버진 그런 걸 모르냐?

똘똘이　알지머, 아는데두 실천을 안하니까 그러지

삼녀　너의 아버지 락후 하구나

똘똘이　아냐, 요즘은 좀 나아졌어.

삼녀　그래?

똘똘이　그럼! 이젠 매달 저금한단다. 그래, 너의 아버지는 저금하냐?

삼녀　하잖구! 한 달에 꼭꼭 십원씩 한단다.

똘똘이　이야—우리 아버지보다 못하구나 우리 아버지는 매달 봉급의 80% 이상씩 저금하는데

삼녀　그래? 대단하구나

똘똘이　그럼머, 어머니한테 랑비를 한다구 그렇게 비판을 받구두 저금을 안하면 되겠니,

삼녀　그렇게 봉급의 80% 이상이나 저금하구두 생활이 되냐?

똘똘이　되잖구! 되두 넉넉히 된다.

삼녀　어떻게?

똘똘이　저금한 그 다음 날엔 도루 다 찾아 내니까

삼녀　아유, 한심해라, 너의 아버지 머리는 참 좋다 애, 어쩌면 그런 묘한 생각을다 해 냈을까?

똘똘이　부기장 동무한테 배웠대,

삼녀　뭐? 부기장한테 배웠어?

똘똘이　아버지네 직장 부기장 동무는 봉급을 내줄 때면 〈동무, 저금을 좀 하시요, 기왕이면 한 80% 이상 하시구려. 래일이면 내가 책임지구 도루 다 찾아다 줄테니…〉 그런다거든.

삼녀　아유—그 부기장님 깜찍도 하네.

똘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저금한게 더 많다.

삼녀　그래? 정말이냐?

똘똘이　정말 아니구! 어떤 땐 우리 아버지가 담배 값이 없어서 나더러 돈 좀 꾸이라고 한다.

삼녀　야—너의 아버지 위신 없구나

똘똘이　아냐, 위신 있어.

삼녀　위신 있어?

똘똘이　그럼! 집에서 밥투정 할 땐 대단하다.

삼녀　뭐? 밥투정을 해?

똘똘이　(어른의 목소리로) 〈여보! 뭘 해서 먹으라우? 식찬이 있어야 먹지…〉 큰 소리 땅땅 친다.

삼녀　그럼 너의 어머니가 위신 없구나

똘똘이　아냐, 우리 어머니 더 위신이 있어

삼녀　어떻게?

똘똘이　(녀인의 목소리로) 〈돈만 생기면 다 마셔 버리군 큰 소리가 무슨 큰 소리요!?〉하면 우리 아버지 끔찍 못하구 쑤걱쑤걱 밥만 잡순다

삼녀　너의 아버지 술 참 좋아 하는 게로구나?

똘똘이　아냐,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술이 우리 아버지를 좋아 해,

삼녀　술이 너의 아버지를 좋아 해?

똘똘이　글쎄 우리 아버진 매번(어른의 목소리로) 〈아, 이젠 술을 딱 끊어야지, 술을 먹어야 좋은 건 하나두 없어 돈 랑비하구 머리만 멍—하구…〉 그러시거든.

삼녀　음 그래?

똘똘이　그럼!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게 분명한데 그래두 술허구는 헤여지지 못하는 걸 보면 암만 해두 술이 우리 아버지를 지독히 좋아하는 모양이야

삼녀　아무러면 술이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냐? 너의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게지…(새끼 손가락을 가리키며) 너의 아버지 요거다 애,

똘똘이　쉬—조용해라, 우리 아버지 저기 오신다, 어서 가자.

승차용《악수》

리 춘수 그림

새해에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합시다

원 광수 그림

설날 아침의 대 소동

백 인균 그림

《세금 조작의 마술사》

조 병 조

《재무부 장관》은 모시 바구니 같은 머리를 쥐여 뜯었다. 그것은 천정 부지로 팽창한 《예산》 세출입 계수가 도무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턱을 쳐들고 천정만 쳐다 보고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났다.

《그렇지 이럴 때는 남의 말도 들어 보는 것이 옳아》

그는 수화기를 벌꺽 들었다.

《여보시요, 농림부 장관님이시오? 헤헤… 재무부 장관이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예산 문제인데… 그렇지요,… 군사비 경찰비를 또 대폭 증가시켜 놓고 보니 세입 계수가 맞아 떨어져야지요… 그렇지요… 농민들을 더 긁어 내야겠소… 무엇이요? 수납곡, 상환곡 이외에 토지 수득세, 수세, 통행세… 그렇지 이것들의 률을 더 높이자는 말이지요…헤헤…좋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매마른 농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세종을 더 불쿨뿐만 아니라 그 률도 대폭 높이자는 《농림부 장관》의 《묘안》에 만족하면서 이번에는《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들어댔다.

《문교부 장관이요? 그렇지 문교부 장관이지요! 다름 아니라 세입 문제인데… 그렇지요, 문교부에서도 세입 원천을 더 확장해 주어야 하겠소, 그렇지요, 세입이 맞아 떨어져야 하지요, 예? 교육세, 입장세, 도서관 열람료를 더 높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서 징수하는 8 종의 잡부금을 또 높이자… 좋소!》

손 인상은 이런식의 《교통부》《상공부》《부흥부》《사회 보건》 등을 통해 《관영》 료금인 《전기세》《기료금》《수도세》《소금 값》을 비롯하여 10종도 더 되는 각종 세률을 또 다시 대폭 올릴 것과 그리고 새로운 세종으로 《결혼세》《인분 제거세》《다리세》 등을 조작하여 인민들에게 들씌우기로 하였다.

그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한국 은행》《농업 은행》 등에서 차입할 작정으로 하고 그래도 부족되는 부분은 《농업 금융 국채》 등 수백억환에 달하는 각종 《국채》를 발행하여 메꿀 것을 예상코 드디어 그는 1960년도의 괴뢰 정부 예산 세출입 계수를 맞춰 낼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살인적인 전쟁 예산을 끝내 꾸며 낸 《재무부 장관》은 예산 보따리를 겉어안고 의기양양하여 승만에게 꼬리를 흔들려고 경무대를 찾았다. 《각하! 각하의 재무부는 각하의 지시대로 196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삽나이다…》

《그래 어떻게 했소?)

《각하의 지시대로 총규모 4,172억환으로 잡고 백성들을 최대한으로 짜내는 방향에서 세입을 채워 넣었삽나이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군사비, 경찰비를 총예산 규모의 70% 이상 잡았으며 자유당의 정,부통령 선거 자금도 넉넉히 봐 두었삽나이다…》

《잘 됐어, 그러면 그것을 국회에 상정하여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라》

《예, 예, 각하의 분부대로 명심하겠삽나이다.》

인민 수탈에 이골이 난 리 승만 도배는 류례 없는 쇠퇴와 몰락으로 특징지어지는 남조선의 현 경제 실태와 인민들의 생활 처지와는 하등의 관계 없이 1959년도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은 살인적인 1960년도 전쟁 예산을 조작하여 이것을 괴뢰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 만성적 기아에서 허덕이는 인민들에게 들씌우기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리 승만 도당의 이와 같은 사기 협잡과 수탈 행위를 폭로하면서 〈조선 민보〉까지도 괴뢰 정부의 《재무부》를 인민들에게 들씌울 《세금 조작 마술사》이며 《온갖 추문과 원성을 지닌 복마전》이라고 하였으며 《농림부》는 《수납곡, 상환곡, 군량미 등의 략탈장》이라고 비난하였다.

새해의 첫 《손님》

조 명식 그림

신년 《선물》

송 시엽 그림

우리 민족의 옛 문화를 자랑하는 경주 석굴암을 비롯한 많은 문화 유물들이 괴뢰 당국의 수수 방관으로 비'바람 속에 방치된채 옛 모습을 잃어 가고 있다.

―수백년 동안 살아 왔지만 리 승만이처럼 우리를 푸대접하는 놈은 처음 봤구만…

허 농택 그림

《불가살이》

백 인균 그림

한웅큼의 쌀

오 흥택

섣달 그믐날이였다.

《어, 령감 있어, 주재소 나리가 내집에 나오셨는데……》

구장은 하면 말도 채 맺지 않고 마당 구석부터 살핀다.

《뭘을 그럽니까?》 짐작한 김 로인은 이렇게 물었다

《허 참 그만허면 알노릇이 아닌가 닭이 필요한데 자네 것을 써야겠네》

《구장님, 한 마리 밖에 없는 씨암닭을 가져 가면 어떡합니까》

《헐수 없지! 온 동네에 자네 집밖에 닭이 없으니까!》 구장은 돼지 멱따는 소리로 호령을 쳤다.

《닭이 왜 우리 집 밖에 없소? 박 지주네 집에두 있구, 면서기 황씨 댁에두 있구, 거— 구장 어른네두 몇 마리나 있지 않습니까!》 김 로인은 어이가 없어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뭐? 뭐? 남이 닭 치는 것은 왜 간섭이야 응? 저번 지서 개축비두 안 물었지, 면사무소 신탄비도 밀렸지, 게다가 지서 주임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계란 하나 이렇단 말 없이 무슨 렴치로 떠드는 거야, 응》 구장은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상판을 실룩거리면서 고함을 지른다

《며칠째 끼니를 굶는 판인데 어떻게 그 많은 잡부금을 치른단 말이우》

《그래 끼니는 너 혼자 굶는다구 신세 타령이냐, 우리 동네만 해두 벌써 쌀 떨어진 집이 대부분인데 응, 이 놈들은 모두 굶는 타령 뿐이야》

김 로인은 하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구장은 끝내 한 마리 밖에 없는 닭을 강탈해 갔던 것이다.

날이 새면 설이다. 구장, 박 지주 그리고 면서기를 하는 황가네는 떡을 치고 닭을 잡는 등 야단법석이다. 헌데 김 로인은 한 웅큼의 쌀 밖에 없다.

오늘도 몇 차례에 걸처 빚받이'군들이 김 로인네 댁에 밀려 들었다. 설을 넘길 수 없으니 빚을 청산해 달라는 것이다. 박 지주는 설이 왔으나 고기풍지 하나 이렇다는 소식도 없다고 불이 부어 있다.

《이 놈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 간담》 굶주린 배를 끌어 안고 씨근거리며 자는 아이들이 가엾다.

밤이 이슥하여 김 로인은 한 웅큼 밖에 없는 쌀 자루를 들추어 냈다. 설날에는 비록 밥은 못 먹는다 해도 쌀물이 들어간 시레기 죽이라도 끓여 먹이겠다는 어버이의 심정에서이다.

김 로인이 상념에 잠겼을 때다. 문을 차고 들어 온 놈이 있었다.

《그래 아무 소식도 없이 설을 넘길테냐》 서울에서 깡패노릇을 해먹다가 요즘은 박 지주네 빚받이'군이 된 자다.

김 로인은 소스라처 놀랐다.

《임자네 집에 아직 쌀이 있었구나. 흥 밤낮 굶는다구 야단을 치더니 밤이면 이렇게 쌀을 꺼내서 무엇을 해 먹군 하지? 응》 빚받이'군은 방안에 있는 빈 쌀자루를 보고 지랄을 한다.

《……………………》

《임마, 왜 말 못해》 빰을 후려 갈겼다. 집안 식구들이 놀라서 깼다.

《임마, 쌀을 내 놔》 눈을 부라리고 고함을 질렀다.

《쌀이 어디 있소?》

《뭐? 쌀이 없다면 단줄 알어? 저 쌀 자루는 뭐야? 돈이 없으면 쌀이라도 좋으니 빚을 갚으란 말이야!》하고 깡패놈은 집을 뒤지기 시작 했다.

《임마, 어디다 쌀을 감추었어 응?》

《설날 아침에 쌀물이 들어간 갱죽 한 그릇이라도 먹어 보자고 굶어가면서 뭉쳐둔 한 웅큼의 쌀 밖에 없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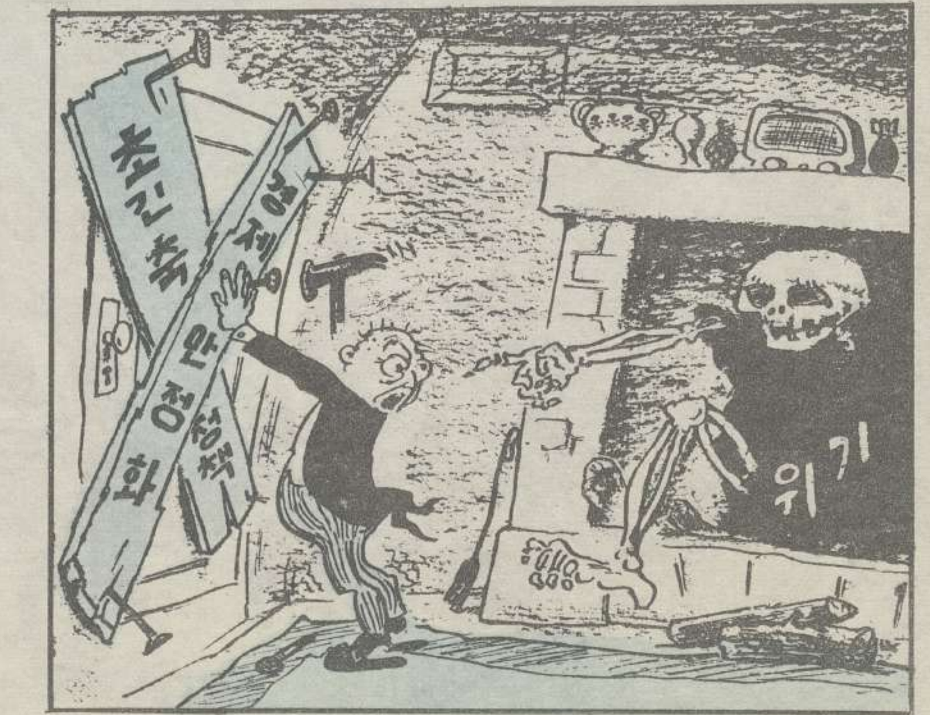
《임마, 남의 빚은 안 갚으면서 쌀죽을 맛보겠다구?》 빚받이'군은 한 웅큼의 쌀을 들고 또 고함을 쳤다.

《임마, 이것은 네집에 쌀이 있다는 증거야! 어서 쌀을 내란 말이야!》

빚받이'군은 한 줌의 쌀마저 쥐고 휭하니 달아나고 말았다.

《후—이놈의 세상! 네놈들이 망할 날도 머지 않았어……》 김 로인은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쉬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북녘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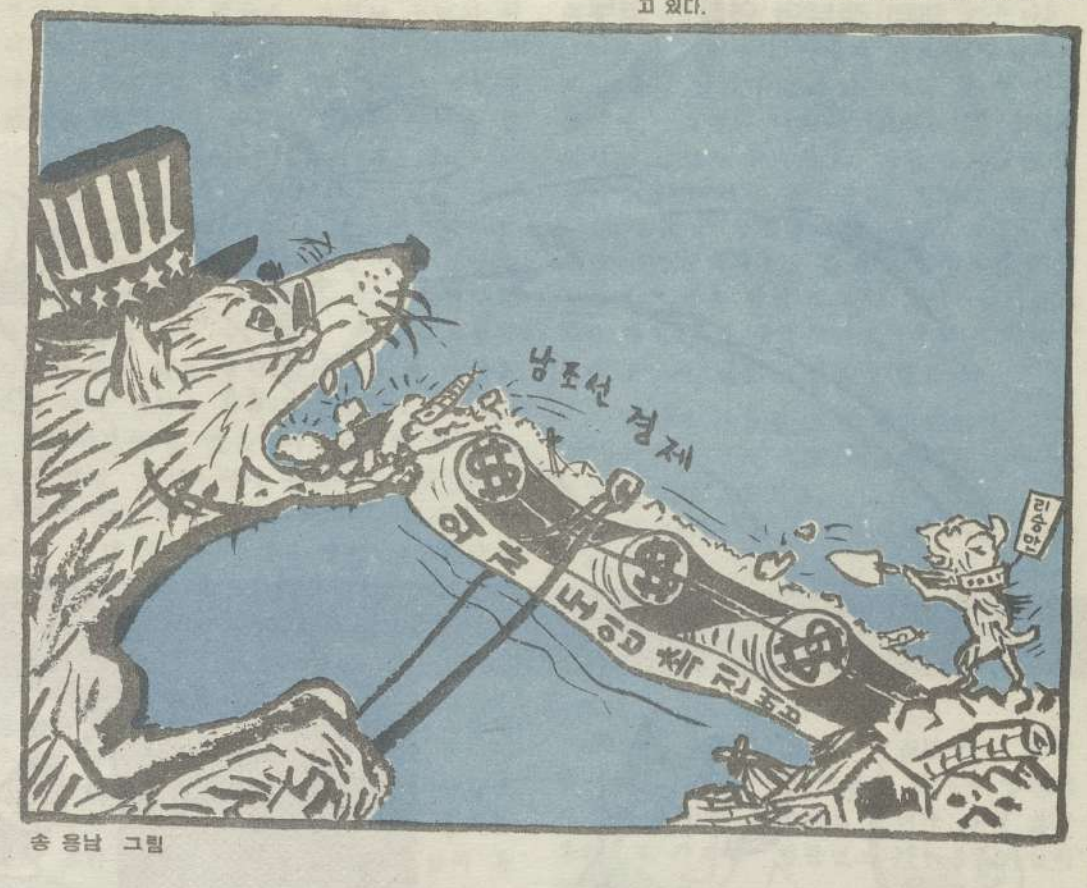
막지 못한다



백 인균 그림

략탈자의 《법》

지난 12월 28일 리 승만 도당들은 매국적인 《외자 도입 촉진 법안》을 괴뢰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 자본의 무제한한 략탈과 전횡을 보장하고 있다.



송 용남 그림

리 승만식 《일력》

백 인균 그림

괴뢰 장관 《국시》를 론한다

괴뢰 사회 보건부 장관 손 창환이란 자는 지난 12월 9일 기자들 앞에서 담화하면서 저들이 하는 《이민》의 목적이 《외화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지껄였다.

송 용남 그림

—에—《이민》 이것은 외화 획득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괴뢰 정부의 역할과 임무

백 인균 그림

무모한 발악

재일 동포들이 북조선으로 귀국할 날이 점점 다가오자 리 승만은 안달이 나 안절부절을 못했다.

《외무부 장관, 북송 저지 책략이 어떻게 됐느냐?》

《예,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니이가다 송환 쎈트와 적십자 건물을 폭파시킬 결사대원까지 보냈습니다.》

《그래 폭파했느냐?》

《그 구역까지 뚫고 들어 가긴 했는데 그만 일본 경찰들 한테…》

《아이구 죽일놈들! 그놈들까지 우리를 배척하니…》

《그래서 일본 외상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 관리를 추방하겠다구까지 했습니다.》

《아이구…고교놈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마저 차넣으려구 하는구나, 음—괘씸한 놈들, 변절자! 배신자! 그래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구 있느냐?》

《특무 40 명을 파견했습니다.》

《고거 40 명 가지구 뭘 하겠느냐, 북한으로 가는 놈들의 기세가 충천한데》

《우리들의 끄나불인 한국 거류민단 200 명을 뽑아 행동대를 조직해서 니이가다루 보냈습다. 그리구 쫓아 다니며 북한행 포기하라구 설득 대회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또 1000 명의 폭력단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놈도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북송이 리행되는 날엔 우리 남한이 못살 곳이라는 것과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가 있는 교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는게 온 세상에 폭로되구 우리 지반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니 니이가다로 북송 교포를 싣고 가는 기차를 폭파시켜서라도》

귀국 날자는 바싹바싹 다가 왔지만 리 승만의 저지 책동은 하나도 효과를 내지못했다.

《외무부 장관! 뭘하구 있느냐!! 그냥 북한행 교포들이 니이가다루 물밀듯이 모여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직한 200명의 행동대가 기차 선로에 들어 눕게 했습니다.》

《그래 저지시켰느냐?》

《황송하오나 대통령 각하, 우리 힘은 너무 약합니다. 거의 전부가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으로 가겠다는 결심이 반석 같은데 우리는 허위 선전과 강제로 할라니…》

《그래 그것도 실패했단 말이냐?》

《……》

《에이 이 등신들아! 선전을 어떻게 했기에 북송을 포기하기는 커녕 떠나는 놈, 보내는 놈들이 리상향으로 가게 되였다고 열광적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영불 통신까지 보도하게 만들었느냐!》

《일본 정부의 추방이고 강제 송환이라고 선전이야 굉장히 했습죠. 그러나 우리의 허위성만 들어났습니다. 배에 타는 직전까지 아주 자유스러운 방에서 재삼 의사 확인을 했지만 한 사람도 북송을 포기한 사람은 없다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했기 때문에…》

《이런 벼락을 맞을 놈들!》

《그리구 북한에 가 보고 온 니이가다현 지사까지도〈지난 7월의 북조선 방문 결과로서 나는 당신들이 북조선을 좋아하리라고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북조선이 건설을 하고 있는 업적을 보았다〉고 연설을 하니 우리 선전은 듣지도 않습니다.》

《이 바보들아, 걸음마다 실패란 말이냐! 국제 사법 재판소에다 제소라도 해 봐라! 그리구 급히 국제 적십자에다두 협조를 청해라, 빨리 외무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방조해 달라고 전문을 치고 외무부 차관은 빨리 미국 대리 대사님에게루 달려 가서 방조해 달라고 간청을 해라, 그리구 륙해공군 총참모장들은 급히 모여라》

일본이 끝내 북송을 감행하는 경우엔 무력으로라도 저지시키자는 흉책이다

그러나 귀국선이 쏘련 선박이라는 사실에 그의 상전인 미제도 감히 손을 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유엔군 사령부의 지시 없이 독단으로는 행동을 취하지 말라고 저지하였다.

《아이구!—》

마지막 기대였던 무력 행사까지 못하게 된 리 승만은 가슴을 두드렸다.

미국까지 쏘련을 겁낸단 말이냐?!

리 승만은 그처럼 세계 최강이라고 믿고 있던 상전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안달아하는 리 승만에게서 성화 같은 독촉을 받는《외무부 장관》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빨리 회답하라고 일본 정부에 연방 독촉을 했다. 《시간은 빨리 흘러 가누나》

외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토로한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초조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제의 책동도 리 승만의 발악도 산산이 눌리치고 재일 동포들은 열광적인 환송 속에 북조선을 향하여 떠났다

《아이후 이놈들아 이게 무슨 망신이냐! 남한은 못살데라는게 온 세상에 폭로됐구나!

그래 미국은 이걸 보고만 있단 말이냐?! 북진 통일은 다 틀렸구나! 대통령 자리두 오래 못…이 일을 어떻겐단 말이냐》

리 승만은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다.

《이제라도 빨리 국제 적십자에서 손을 떼라고 강경히 요구해라》

《조금 전까지 국제 적십자에다 저지시키도록 간섭해 달라고 했는데 이젠 또 손을 떼라고 하면…》

《명령이다!! 빨리 집행해라! 지금 염치가 다 뭐냐!》

허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아이구 하느님! 이젠 다 틀렸구나! 외무부 장관! 이 등신아! 어떻게 했기에 남한에서 간놈까지 제 고향으로 오려구 하지 않구 북한으로 가게끔 만들었느냐?! 음? 파면이다!!》

그러나 이것이 《외무부 장관》의 책임인가?

일본의 유력한 신문인 〈아사히 신붕〉은 쓰고 있다.

《남조선은 그들의 북조선 귀환을 덮어 놓고 방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북조선으로 가는 리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남조선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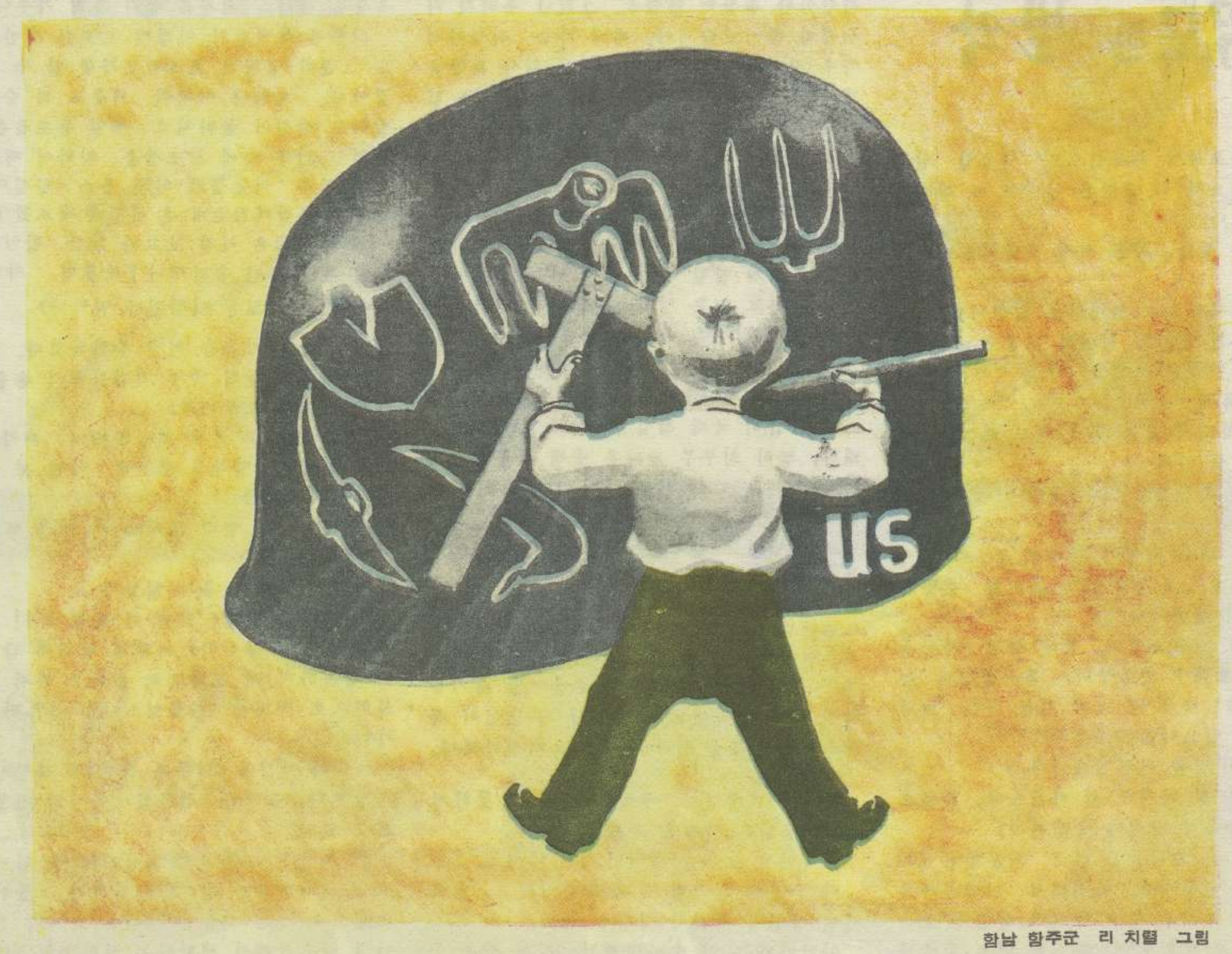
리 윤봉

막을 수 없는 힘

송 시엽 그림

《국가들이 무력의 유지와 무기 생산에 지금 소비하고 있는 비용을 유익한 목적에 사용 함으로써 모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례 없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엔 에쓰 흐루쑈브

평화의 설계가



함남 함주군 리 치렬 그림

위험한 곡예

불란서가 서부 독일과 더불어 파리 추축을 형성한다는 것은 불란서를 다시금 군국주의 서부 독일의 침략하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최 영근 그림

감출 수 없다

김 동철 그림

제국주의자들의 설맞이

로 철

이제 몇분만 지나면 설맞이 대 연회가 벌어지게 된다.

오늘 연회의 주인인 미국의 대 독점 자본가이며 뉴욕주 지사인 록펠러는 저으기 흡족한 낯으로 넓고 호화로운 대 연회장을 휘돌아 보았다.

오늘 연회에 초대된 손님들은 해마다 지켜 온 관례에 따라 대통령, 부대통령, 국무장관, 국방 장관을 비롯하여 민주당, 공화당의 두목들, 상, 하원의 활동가들, 대실업가 등 모두가 고위 현관들 뿐이였다.

—오! 그들은 우리 월가를 위하여 그리고 록펠러 일가를 위하여 그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 주었던가!

우선 아이젠하워만 하여도 그렇다. 그가 집정한 8년간 록펠러 일가의 개인 재산은 17억 딸라에서 35억 딸라로 껑충 뛰여 올라갔던 것이다. 그는 칠순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전의 돈'주머니를 걱정하는 나머지 대서양을 건너 11 개 《우호 국가》들을 《친선 방문》하면서 열심히 《랭전》의 앞길을 닦지 않았는가.

부대통령 닉슨, 그가 록펠러 일가에 끼친 공로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력사에 영원히 남을만하다. 심지어 그는 비오듯 쏟아지는 사과 부스러기, 썩은 닭알,통조림, 모진 돌팔매질을 맞으면서까지 다만 상전의 치하하는 말 한 마디를 바라는 일념으로 모든 아픔을 참으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돌아 다니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국무 장관 허터, 국방 장관 게이츠에 대하여 말한다면 록펠러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쌍지팽이 신세가된 허터가일찌기 1950년, 《오스쩬하워》 회사의 파업 로동자들 앞에서 그의 주주 록펠러의 《광대 무한한 선심》에 대하여 극구 찬양하다가 모두매까지 얻어 맞았으니 가히 짐작할만 하지 않는가. 지금 그는 피츠부르그시에서 흐루쑈브 쏘련 수상의 미국 방문이 가져다 준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랭전》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인차 연회장에로 달려 올 것이다.

게이츠는 지금 캐나벨라 로케트 시험 발사장에 가 있다. 5년 전만 하여도 중좌였던 이 풋내기는 누구 때문에 자기가 해군 차관, 국방 차관을 거쳐 강적 맥클로이를 떨쳐 버리고 그 대신으로 오늘의 장관 자리에까지 기여 올라 갈 수 있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록펠러의 연회장에 《각하, 당신의 로케트는 달에 명중하였나이다》하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 《아틀라스》의 열 두 번째 시험 발사를 친히 지휘하려 나섰던 것이다.

—참 충실한 친구들이야… 오늘 신년의 첫 축배를 이 주구들을 위하여 들어야지…. 싱글벙글 좋아들 할걸….

하고 록펠러는 만족한듯 중얼거렸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된듯한데 왜 이 작자들이 나타나질 안노?

—대통령은 왜 아직 나타나질 않소? 허터와 게이츠는 어떻게 되고, 앙! 이게 우리 대 록펠러일가의 설맞이요? 미국, 아니 세계 지배자의 설맞이가 이래야 된단 말이오, 앙?

때마침 닉슨의 호위 장교가 나타났다.

—각하,부대통령은…졸도해서…방금 입원했…

—졸도? 기절했단 말요?

—예, 예, 사유는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닉슨씨는 신년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모두 사과, 닭알, 통조림 등이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당한 봉변이 련상되여서… 그만 앗!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만…

록펠러는 맹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노발 대발하였다.

—각하, 진정하십시오, 허터는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피츠부르그 시민들이 이로인의 연설을 듣고 대단히 들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어떤 포위라도 뚫고 나타나고야 말 것이고 또 게이츠로 말하면 이 용감한 기사는 새 소식을 가지고 인차…

정말 게이츠는 새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다.

《국방 장관 게이츠씨가 오십니다》하는 시종관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게이츠…

—예, 게이츠 올시다

하고 국방 장관은 록펠러에게 거수 경례를 하였다.

—각하 1960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당신의 로케트는 례년처럼 바다에 쳐들어 갔습니다…대폭발 끝에…저는 구사 일생으로 겨우…

으악! 미국의 지배자 록펠러는 혼비백신하여 뒤로 나자빠졌다.

오! 가련한 제국주의자들의 설맞이여!….

두 축배

홍 종호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061
발행 1959. 1. 11
(값 40전)

95
8034
Хвальсаль
ПЭК 8
ул. айковского
г.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Ц8034